

테러 선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에 대한 테러를 선동하고 후보자를 비방한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지난 28일 김 의원은 상대 후보를 향해 총알이 아깝다는 극단적 조롱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나 했을 법할 말이 백주대낮 선출직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대체 무슨 말입니까. 후보의 안전을 포기하고 위협에 노출시키라는 말입니까. 대선 후보 테러를 공공연히 조장하는 말입니까.

막말과 조롱을 넘은 실체적 위협입니다. 흥기피습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겼던 테러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가해입니다.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진짜로 총을 든 군인을 동원했을 때는 아무 것도 안한 것이 김 의원이고 국민의힘 대다수입니다.

지금 김 의원과 국민의힘이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연단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엄과 내란을 막은 국민들 덕분입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 어느 정당이든 대선 후보자에 대한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5년 5월 31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